

2018 이음 창작 뮤지컬 ‘스테이지 이음’ 시놉시스 및 대본 공모 심의 총평

2018 이음 창작뮤지컬 ‘스테이지 이음’ 시놉시스 및 대본 공모는 시놉시스 총 9건, 대본 총 8건이 접수되었으며, 심의위원들의 면밀한 지원신청서, 트리트먼트 및 대본 검토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시놉시스 부문 3건 및 대본 부문 1건을 선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제작의 실현 가능성, 작품의 파급효과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본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며 사업의 목적성과 방향성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시놉시스>

이번 공모는 장애공연예술 분야의 우수한 뮤지컬 레퍼토리를 창작할 능력을 갖춘 뮤지컬 창작 실력과 활동력을 가진 신진 작가 및 작곡가들의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가장 중점을 둔 선정 기준은 작품이 가진 직관적인 주제 전달, 당해연도 작품 개발 및 독회 지원이 가능한 완성도였다. 또한, 향후 전문가 멘토링, 쇼케이스 등의 작품 개발 과정을 통해 장애공연예술계 생태계 발전을 실천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적합성 여부에 보다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선정 작품들의 경우, 집중력 있는 소재와 흥미요소 및 음악과 드라마가 잘 어우러졌고, 메시지가 있고 작품에 반영될 문학적인 소재에 대한 기대감을 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많은 작품들에서도 소재, 메시지 등에서 부분적으로 발전 가능성들이 보였으나 이번 심사에서는 전체 기준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였다. 창작 활동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고 보완해서 더 좋은 예술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를 기원한다.

<대본>

심사에 앞서 우리는 앞으로 장애예술은 소재에 ‘장애’가 들어가거나 창작자(참여자)그룹에 장애인이 있는가 하는 단순규정을 넘어 오히려 장애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들만의 감수성’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만들어낸 작품을 지향해야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였다. 막연할 수 있는 공유를 돕기 위해 타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작업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장애예술이 동시대 예술로서의 가치가 오히려 더 뚜렷하고 나아가 비장애인의 관습적인 공연 만들기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심의에서는 공모취지에 맞게 창작자를 심사위원이 알 수 있게 진행되었으며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자는 애초에 심사 기피제를 두었다. 선정 후보에 오른 대본들의 장·단점에 대한 평가는 엇비슷했으나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한 작품은 기존의 방식으로 보나, 지향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보나 함량미달인 작품이 많았다. 소재를 ‘장애’에서 취했거나 창작자 안에 장애인이 있다고 해서, 작품의 역량이 부족해도 이해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그만 지양하고 오히려 ‘장애’를 ‘그들만의 고유한 감수성’으로 파악, ‘다른 방식으로 세상 보기’를 적용한 ‘그들만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기대한다.